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February 2025 Issue | Vol. 16

SPECIAL POINTS OF INTEREST

- PEZA 프로젝트 승인, 337.5% 급증하여 529억 페소 기록 — page 1
- 승인된 투자액, 사상 최고치인 19조 페소 기록—BII — page 2
- ECCP: 필리핀의 FATF 감시 목록 제외, 투자자 신뢰 강화 — page 2
- BIR, '유령 영수증' 사용자 및 판매자 단속 강화 —page 3
- DTI, 더 효율적인 물류 및 공급망 추진 — page 4
- 필리핀 경제, 2025년 5.9% 성장 전망 — UBS —page 4

UPCOMING EVENT

- [April 03, 2025] KCCP 제30회 정기 총회 — page 5

PEZA 프로젝트 승인, 337.5% 급증하여 529억 페소 기록

February 24, 2025 | Reine Juvierre S. Alberto | BusinessMirror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은 올해 첫 두 달 동안 투자 승인액이 337.58% 증가하여 529.33억 페소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같은 기간의 120.97억 페소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PEZA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신규 및 확장 프로젝트 39건을 승인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8건 대비 39.29% 증가한 것이다.

이번에 승인된 PEZA 프로젝트로 인해 창출될 일자리는 총 11,063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9.02% 급증한 수치다.

최신 수치는 지난해 승인된 3,580개 프로젝트가 창출한 연간 고용 규모를 초과했다.

테레소 팡가 PEZA 청장은 월요일 늦은 성명에서 “이번 괄목할 만한 상승세는 다양한 해외 투자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추가적인 투자 유치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PEZA는 2월 20일 이사회 회의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227.77억 페소 규모의 신규 및 확장 프로젝트 26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프로젝트는 연간 2억4,178만7천 달러의 수출을 창출하고, 7,793개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PEZA는 이번에 승인된 프로젝트가 △수출 제조업 9건 △정보기술-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IT-BPM) 8건 △국내 시장 프로젝트 3건 △시설 개발 이니셔티브 2건 △경제구역(Ecozone) 개발 4건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들 프로젝트는 메트로 마닐라, 칼라바르손, 중부 루손, 중부 및 서부 비사야, 일로코스 지역, 다바오 지역 등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타를락과 바탕가스에서 진행될 예정인 두 개의 주요 프로젝트가 총 159.89억 페소의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규모 프로젝트들은 필리핀의 투자 유치를 더욱 촉진할 것입니다.”라고 테레소 팡가 PEZA 청장은 말했다. 이 중 하나는 104.50억 페소 규모의 한국 기업 프로젝트이지만, 팡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팡가는 필리핀-한국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PEZA가 기지변환개발청(BCDA)과 협력하여 제조업, 농업, 관광, 정보기술 등 다양한 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다기능 경제구역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제 기회가 확대되고 산업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발 사업은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필리핀에 진출하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라고 팡가는 덧붙였다.

PEZA와 BCDA 관계자들은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복합용도 경제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PEZA는 지난 1월 타를락시에서 280억 페소 규모의 음료 생산 및 유통 시설 투자도 승인한 바 있다. 팡가는 어제 오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의 투자자가 익명을 원했다고 전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peza-project-approvals-soar-337-5-to-p52-9b/>

승인된 투자액, 사상 최고치인 1.9조 페소 기록—BOI

February 25, 2025 | Janine Alexis Miguel | The Manila Times

The Manila Times

2024년 투자 승인액이 사상 최고치인 1.9조 페소를 기록했다고 필리핀 투자위원회(BOI)가 월요일 발표했다. 이는 연간 목표인 1.6조 페소를 초과한 것이며, 2023년 기록한 1.26조 페소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국내 투자가 지난해 승인된 투자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5,780억 페소에서 1.35조 페소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외국인 투자는 5,440억 페소를 기록했다.

BOI는 프레데릭 고(대통령 특별 보좌관, 투자·경제 담당)의 말을 인용해 “이러한 전례 없는 성과는 필리핀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커지고 있으며, 정부의 투자 및 경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고는 “이러한 승인된 프로젝트들이 향후 몇 년 동안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으로 이어질 것이며, 특히 필리핀인들에게 더 많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 주도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OI에 따르면, 2024년 투자 부문별로는 신재생에너지가 1.30조 페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제조업(1,440억 페소), 부동산(1,380억 페소), 운송 및 보관(1,310억 페소), 전기·가스·증기·공조 공급(790억 페소)이 이었다.

스위스, 한국, 네덜란드, 일본, 싱가포르가 주요 해외 투자국으로 나타났다.

BOI의 페리 로돌로 차관은 “승인된 투자들은 필리핀 경제를 현대화하고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통신 인프라, 혁신 기반의 경공업 제조업, 첨단 기술이 접목된 농업 부문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BOI는 투자 증가가 필리핀의 투자 환경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5/02/25/business/top-business/approved-investments-hit-record-p19t-boi/2061328](https://www.manilatimes.net/2025/02/25/business/top-business/approved-investments-hit-record-p19t-boi/2061328)

ECCP: 필리핀의 FATF 감시 목록 제외, 투자자 신뢰 강화

February 26, 2025 | Kris Crismundo | Philippine News Agency



마닐라, 필리핀 – 유럽상공회의소(ECCP)는 필리핀이 금융행동특별기구(FATF)의 감시 목록(그레이리스트)에서 제외된 것을 환영하며, 이는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고 필리핀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CCP는 화요일 성명을 통해 이번 성과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2024년 7월 제정된 ‘금융 계좌 사기 방지법(AFASA)’을 꼽았다.

또한 ECCP는 AFASA의 제정을 높이 평가하며, 이 법이 금융 계좌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전체 금융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은 금융 기관이 고객 계좌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금융 계좌 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 부문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한다.

ECCP는 “AFASA의 제정은 금융 범죄에 대응하고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며, “ECCP는 정부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필리핀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TF)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ECCP는 이번 조치가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 거래 및 국제 무역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 필리핀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CCP는 “필리핀이 FATF 그레이리스트에서 제외됨으로써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할 것이며,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ATF 그레이리스트는 AML/CTF 시스템의 미비점으로 인해 강화된 모니터링을 받는 국가들을 포함하며, 필리핀이 이 목록에서 제외된 것은 전략적 미비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ECCP는 이번 성과가 필리핀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금융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마르코스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FATF 회장 엘리사 데 안다 마드라조(Elisa de Anda Madrazo)는 지난주 브리핑에서 “2021년 6월에 합의된 필리핀의 행동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필리핀을 그레이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며, “필리핀은 카지노를 통한 불법 자금 유입 위험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등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08605/eccp-ph-removal-from-fatf-grey-list-boosts-investor-confidence](https://business.inquirer.net/508605/eccp-ph-removal-from-fatf-grey-list-boosts-investor-confidence)

BIR, '유령 영수증' 사용자 및 판매자 단속 강화

February 24, 2025 | Reine Juvierre S. Alberto | BusinessMirror

국세청(BIR)은 세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가짜 영수증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계속 추진하면서 올해 유령 영수증 관련 사건에서 약 80억 페소를 징수할 계획이다.

지난 금요일, 국세청 동부 NCR 제7B 세무 지역의 세금 캠페인 개막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로미오 D. 루마기 국세청장은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개인 및 기업으로부터의 징수액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BIR)의 유령 거래 단속(Run After Fake Transactions, RAFT) 캠페인을 통해 2024년 현재까지 43억 페소를 징수했으며, 이는 2023년 징수액인 6억 페소보다 7배 증가한 수치이다.

루마기 국세청장은 이 43억 페소가 일부 납세자로부터만 징수된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유령 영수증으로 인한 징수액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국세청장은 혐의 대상자가 체납 세금을 납부하면 해당 소송은 철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5년 동안 유령 영수증으로 인해 정부가 3,700억 페소의 세수를 손실했으며, 이 중 1,200억 페소는 부가가치세(VAT) 손실, 2,500억 페소는 소득세 감소로 추산된다.

유령 영수증을 사용하면 부가가치세(VAT) 및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국세청장실의 루이스 식스투스 에스키비야스는 설명했다.

국세청은 약 3만 개의 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유령 영수증 판매업자로부터 영수증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RAFT 캠페인 하에서, 국세청은 25억5천만 페소 상당의 세금 체납액을 보유한 4개의 유령 기업과, **총 179억 페소의 체납액을 보유한 3개의 법인 구매자 및 회계 법인, 공인회계사(CPA)**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유령 영수증 구매자 및 판매자 15건에 대한 형사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69명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법무부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들의 체납 세금 규모는 총 18억 페소에 달한다.

한편, 국세청은 2025년 세금 징수 목표를 3조2,300억 페소로 설정했으며, 세금 집행 강화, 준수 모니터링, 온라인 판매자 및 인플루언서 과세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025년 1월까지 총 3,506억 페소를 징수했으며, 이는 2024년 1월 대비 13.7% 증가한 수치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2/24/bir-to-run-after-more-users-sellers-of-ghost-receipts/>

DTI, 더 효율적인 물류 및 공급망 추진

February 25, 2025 | Reine Juvierre S. Alberto | BusinessMirror



마닐라 - 필리핀 통상산업부(DTI) 메리 진 파체코(Mary Jean Pacheco) 차관은 국내 물류 및 공급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 상품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임을 재확인했다.

파체코 차관은 월요일 밤 마카티시에서 열린 *LogisticsNews.PH* 출범 행사에서 일본 교통관광연구소(JTTRI)의 연구를 인용하며, 국내 공급망 개선을 위해 인프라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체코 차관은 JTTRI의 권고 사항 중 주요 내용으로 마닐라, 바탄가스, 수빅 항만의 기능을 통합 및 강화하여 수용 능력 개선 복선 철도의 지속적인 개발 및 적절한 유지보수, 화물역의 설치 및 업그레이드 바지선을 활용한 운송을 통해 지역 도로의 부담 완화 안정적인 롤온롤오프(RoRo) 네트워크 구축 주요 항만 인근 핵심 지역에 물류 허브 개발 수도권 외 지역의 물류 네트워크 확장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Cont. page 4]

DTI, 더 효율적인 물류 및 공급망 추진

[Cont. from page 3]

기타 대책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 구축, 물류 분야의 정보기술(IT) 활용, 그리고 물류 이해관계자 간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

파체코 차관은 이러한 조치들이 상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적절한 시기에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올바른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물류 및 공급망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투자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모든 투자가 필리핀 군도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길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꿈꾸는 목표 중 하나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LogisticsNews.PH는 무역 및 물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비즈니스 뉴스 플랫폼이다.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44876>

필리핀 경제, 2025년 5.9% 성장 전망 — UBS

February 25, 2025 | Ruelle Castro | Malaya Business Insight

국내 소비 중심의 필리핀 경제가 올해 5.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무역 전쟁이 심화될 경우 필리핀 폐소가 지역 내 다른 통화보다 다소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UBS 투자은행 글로벌 리서치가 밝혔다.

“전반적으로 필리핀은 잠재적인 무역 관세 확대 시 방어적인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UBS 투자은행 글로벌 리서치의 동남아 및 아시아 담당 이코노미스트인 그레이스 림(Grace Lim)은 말했다.

“이는 필리핀이 기본적으로 국내 경제 중심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따라서 무역 관세가 확대되더라도 필리핀 폐소는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림은 설명했다.

UBS가 필리핀 경제 성장률을 5.9%로 전망한 데 대해 림은 필리핀의 경제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필리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24년 5.6%에서 2025년 5.9%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장기 평균 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입니다.”라고 림은 말했다.

그녀는 2025년에도 필리핀 경제 성장이 국내 수요, 특히 투자와 소비 증가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 측면에서는 견고한 노동 소득 증가와 점진적인 식료품 물가 안정이 소비를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림은 밝혔다.

UBS는 필리핀의 노동 시장이 여전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실업률도 약 3% 수준에서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금융 서비스 회사는 2025년 2분기부터 소비 회복이 점진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적으로, 정부 지출이 2025년 상반기에 성장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라고 림은 말했다.

그녀는 서비스 산업, 특히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부문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 여건이 점차 완화되고 소비자 심리가 회복됨에 따라 민간 투자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림은 밝혔다.

한편,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올해 4월과 9월에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2025년과 2026년에도 목표 범위 내에서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림은 설명했다.

2월 13일 열린 통화정책 회의에서 BSP 금융통화위원회(Monetary Board)는 기준금리를 5.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목표 범위 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최신 인플레이션 전망은 2023년 12월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금융통화위원회는 밝혔다.

위험 조정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2025년 3.4%에서 3.5%로 소폭 상승했으며, 2026년 전망치는 3.7%로 변동이 없었다.

림은 필리핀 중앙은행이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다소 빠르게 금리 인하 사이클을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ph-economy-to-grow-5-9-in-2025-ubs/>



UPCOMING EVENT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KCCP), Inc.

30TH ANNUAL GENERAL MEMBERSHIP MEETING

April 3, 2025 (Thursday) 05:00pm
Orchard A & B, 5F Ascott Hotel BGC

R.S.V.P.

Ms. Chi | Ms. Sang



(02) 8885-7342



info@kccp.ph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BDO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합니다

bdo.com.ph

We find ways®

BDO Unibank is regulated by the Bangko Sentral ng Pilipinas. <https://www.bsp.gov.ph>
For concerns, please visit any BDO branch near you or reach us thru any of the channels listed on our website <https://www.bdo.com.ph/consumer-assistance>.
Deposits are insured by PDIC up to P500,000 per depositor. The BDO, BDO Unibank & other BDO-related trademarks are owned by BDO Unibank, Inc. All Rights Reserved.